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과 친밀하기

성경: 요한복음 4장 31-38절

Tag: spiritual warfare,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4:31-38)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냅시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마침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복음을 들은 여인은 부리나케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여인이 마을에 돌아간 사이에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물을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숫지 않으시면서,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다. 그런데 그 양식을 무엇인지 곧 밝혀 주셨다.

34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다.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만족을 얻는 것=생리적인 만족 (반지의 제왕; 호빗 족속)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를 때 얻는 만족 =영적인 만족, 성취감 +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영광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순간이니 음식을 먹고 싶지 않으심.

-음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님. 만족하고 기뻐하고 계심을 표현하심.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만족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6:29)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예수님+이를 믿는 것=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또 다른 보혜사=성령님+이를 믿는 것=성령님을 믿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 예수님 + 성령님을 믿는 것=예배하는 것.

\*예배에 관한 것이라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가장 중요함.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예배가 중요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매 순간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일이 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해서 예배를 제일 먼저 함. (예배 시간에 포커싱 된 삶)

-예배 외의 삶은 예배를 지향하는 삶이 되어야 함.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예배이기 때문임.

-최고의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당시의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음.

-사마리아는 반 유대교적 분위기가 큰 지역.

-종교적 분위기가 매우 이단적이고 이방인스러운 지역이었음. 결이 맞지 않음.

-사마리아는 자체적인 종교행사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으며, 사마리아 토라와 그리심산 성전과, 제사장 제도도 독립적이었다. 다신교. 혼혈민족.

-하스몬 왕조(사두개인)는 이들을 핍박하였다. 정치적 갈등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의 여행을 꺼렸다.

-전도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인식되는 지역.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전도를 잘하셨고,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렀다.

\*예배를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은? -전도임. 영혼구령.

-그러므로 전도가 가장 큰 영적 전쟁임.

-전도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함. 단기전략, 장기전략.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함.

35 너희는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은 1년에 두 번 파종하고 추수하는데, 파종 후 보통 4개월이 지난 다음 추수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뜻.

-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완성되었다.

- 구원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 구원의 발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 현재 추수를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이 낮을 기다리고 있다.
- 36절 말씀부터는 해석이 분분하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샀, 영생에 이르는 열매, 한 사람, 다른 사람, 함께 즐거워 함, 노력한 사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사람, 노력한 것에 참여한 사람 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온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뿌리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자.(이미 구원을 받음, 노력한 자.)

거두는 자; 이미 샀을 받음.(이미 구원을 받음, 이미 추수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구원으로 받음.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임.)

영생에 이르는 열매;(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곧 뿌리는 자가 될 자, 이미 추수할 때가 되어 거두는 자가 될 자.)

- (시간 반죽 개념 도입 필요, 예배 시간 속에 이 모든 요소를 넣으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 다르지만, 동시에 노력하고, 동시에 기쁨에 참여하고, 열매가 되기도 함.

한사람이 오늘은 열매가 되기도 하고, 내일은 뿌리는 자가 되기도 하고, 다음날은 거두는 자가 되기도 함. 시간적으로는 동시적 현상. 그러나 각각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열매 맺는 자는 다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구원 현상이고, 이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름.

우리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사무엘상 성경공부 1      성경: 사무엘상 2장

Tag:

<http://sunlin.kr/wdcpjt/221306974057>